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7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2월 19일 (음력 1월 15일) 화요일

전남 서남권 조선업 올해 완만한 회복세 전망

수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이 선박수주 증가와 정부의 지원정책 등으로 올해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한국은행 목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현대중공업(영암)과 대한조선(해남)의 수주잔량(400만6000CGT)은 전년 동기(220만1000CGT)에 비해 82.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늘어난 신규 수주물량이

고부가가치 LNG선 신규수주 절반 이상 차지
2017년 이후 3년만에 인도물량도 증가할 듯
정부·지자체 정책 지원도 경기회복에 한 몫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이들 조선소의 수주물량은 26만4700CGT로 2017년 전체 16만5700CGT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선박 환경규제 강화 등으



겨울에 찾아온 봄의 전령사 '매화'... 완연한 겨울 날씨가 지속된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의 한 카페에 봄의 전령사인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자 시민들이 매화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매화는 장미과에 속한 낙엽 소교목으로 3월 중순에 개화하며 깨끗한 마음, 결백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로 고부가가치선인 LNG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와 LPG선의 신규물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8.1%를 차지해 경기회복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신규물량의 증가는 지난 2017년 이후 2년연속 하락하던 선박의 인도물량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선박 인도물량은 지난 2015년 162만 8000CGT에서 2016년 230만9000CGT로 41.9% 증가했으나 이후 2017년 161만4000CGT(-30.1%), 2018년 99만CGT(-38.7%)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지난 2017년 하반기 수주한 물량들이 작업물량으로 전환되는 올해부터는 147만 1000CGT로 48.0%가 상승한데 이어 내년에도 164만4000CGT로 11.8% 증가할 전망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도 조선업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목포시와 영암·해남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술개발과 임종전환 지원, 보증한도 상향 보증료를 인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국비 등 137억원을 투입해 영암 대불산단에 선박블럭 조립장과 플로팅도크를 구축하는 '중소형 선박 공동진수장' 건립은 하청 위주의 선박블럭 제조에서 자체 건조로 사업영역을 다변화하려는 중소 조선업체들의 수주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계자는 "수주 증가 환경규제 등에 따른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조선업황 전망이 밝다"면서 "미중 무역분쟁 확대에 따른 교역감소 강제 등 부품가격 상승 등은 조선업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CGT(Compensated Gross Tonnage·환산톤수)는 선박의 단순한 무게(GT)에 선박의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 무게 단위이다.

김광춘 전남서부권취재본부장

Photo 漫評

실망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들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이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박(친박근혜) 논란 5·18 관련 등으로 얼룩진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개혁보수가 설 땅은 그곳에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랑한 별판 같지만 과감히 자신의 몸을 던져 양극단에 있는 수구와 좌파들이 판치는 현 정국을 타파하고 국민이 진정한 개혁보수의 동지를 들어봤으면 정말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이사는 5·18과 관련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 논란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에 쓴소리를 해왔다.

김 이사는 지난 14일 '18번 전당대회'를 통해 과거 수구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아버님의 시신을 그곳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조인호 기자

5·18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뮤지컬로 재탄생...40주기 초연

5·18민주화운동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뮤지컬로 재탄생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뮤지컬로 제작해 내년 5·18 40주기에 맞춰 선보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임을 위한 행진곡 뮤지컬 제작 사업에는 13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문화재단은 우선 다음달 초 뮤지컬

공동투자·제작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제작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수의 국내 뮤지컬 관계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자가 선정되면 시나리오 작업과 함께 배역, 사용 가능한 음악 등을 자문 위원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다.

이어 연말께 15분 분량으로 압축된 공연을 프리뷰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완성된 작품은 5·18 40주기인 내년 5월 18일부터 광주에서 초연하고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공연한 뒤 해외 진출을 시도한다.

뮤지컬로 제작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역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노래가 뮤지컬로 제작되면 일회성 공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성장시킬 계획이

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 공연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뮤지컬 시장에서 대중적인 검증은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 제작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 황석영 작가의 아들 황호준 작곡가가 만든 '서곡'을 비롯해 교성곡, 관현악곡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선보였다.

「광주교육 청렴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광주광역시교육청

The 청렴하기-면 행복해요!

